

Korean identity in the international context

Question 1 – transcript

- 기자: 오늘은 국제 요리 대회에서 호주 대표로 우승한 이민정 씨를 만났습니다. 이민정 씨, 안녕하세요?
- 이민정: 안녕하세요.
- 기자: 국제 요리 대회에서 우승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오셨다고 들었는데 한국이 기억나세요?
- 이민정: 아니요. 제가 세 살 때 호주에 와서 한국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.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고, 토요일이면 항상 한국어 학교에 갔죠. 집에서도 부모님과 한국말로 대화하고요.
- 기자: 그러셨군요. 그래서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는군요. 호주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힘든 점은 없었나요?
- 이민정: 별로 힘든 점은 없었어요. 하지만 제 안에 갈등이 많았죠. 집 밖을 나가면 호주고, 집에 오면 모든 것이 한국적이었거든요. 하루에 두 나라를 옮겨 다니는 것 같았어요.
- 기자: 그랬군요. 정체성에 혼란이 왔겠네요.
- 이민정: 네. 하지만 크면서 두 나라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. 이번 국제 요리 대회에서도 만약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몰랐다면 우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
- 기자: 이번에 ‘진생 파스타’로 우승하셨죠?
- 이민정: 네. 제가 아플 때마다 어머니께서 인삼차를 많이 끓여 주셨어요.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몸이 안 좋았는데,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인삼차를 마시다가 문득 파스타에 넣어 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.
- 기자: 그래서 우승 소감 때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셨군요. 앞으로도 한국과 호주, 퓨전 음식의 마스터 셰프, 이민정 씨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